

노익장 과시하는 재담가의 시적 '농담'

《시와 하늘》 펴낸 박상배 교수

희시와 컬트시 연작으로 다시 시단으로 돌아온

박상배 시인은 시가 언어의 유희라는 점을

재환기시키고 있다. 서정적 에센스가 무덤에 묻혀버린

시대에 시인은 뒤틀린 사물과 시어 사이에 존재하는 틈과

균열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한국시단을 강타했던 실험적 경향에는 두 흐름이 있었다. 현실의 키썩적 변형으로 권위와 억압에 저항했던 황지우의 경우가 그 하나다. 또 그와 다른 맥락에서 시형식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반성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박상배 교수(82, 동덕여대 독문과)는 유학과 증진시인으로 그 대열에 적극 가담한 경우다. 그는 《모자 속의 시들》(문학고지성사)과 《잠언집》(세계사)에서 특유의 '비시' '형태시' '패러디시'(텍스트시)를 강조하고 실천하며 기존 시형식을 '농락'해왔다. 이승훈의 '메타시' '놀이시'와 더불어 이는 1990년대 이후 독특한 지류를 형성했다.

그런 그가 근 7년의 침묵을 깨고 세번째 시집 《시와 하늘》(민음사)을 펴냈다. 이 시집에 수록된 '희시'(戲詩)와 '컬트시' 연작을 볼 때 박교수의 해체적 성향은 아직 '건재'하다.

사물과 시인 사이의 희극적 거리

"처음 시에 입문했을 때 한국시단의 보수적 작풍에 저항감이 일터군요. 그래서 시의 서정일변도에 거리를 두는 작법을 선택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집에서 보이는 형식적 일탈은, 기존 시형식에 대한 반성보다는 사물과의 갈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 개인의 전략에 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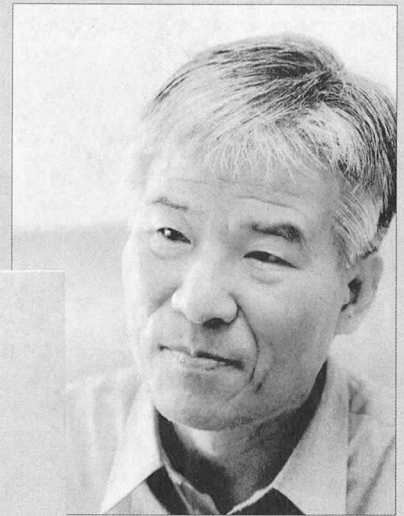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재회>에서 "십년 살다 마음 식어 걷어찬 남/여자도" 해놓고 각주를 달아 "사선 부분을 읽을 때 여성 독자는 <남>을, 남성 독자는 <여>를 선택하길 권함"이라며 친절을 배풍다. <희시·7>에서는 "날말을 훑치며 /

날말을 훑내내며 / 날말을
 굶아먹으며... / 살아온 지
 삼십여 년 // 오 너, 슬픔과
 / 기쁨과 / 회오리침"에서
 연갈이 한 다음 "위의 텍스트는 / 오늘 아침 방을 쓸다가 / 어느 낡은 편지봉투 위 /
 썩어져 있는 걸 /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자백'하며 독자를 희롱한다. 이는 창작 과정까지 시적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때로는 아주 과격한 형태를 보여준다. "고현철이라는 놈이 어인 놈인가 / 꾀도 많고 평론의 조조라고 할까 / 그놈이 나를 기술적으로 씹는단 말씀이야 / 씹어도 고이 씹어야지 고현 놈 고현철"(<희시·16> 전반부).

"저에 대한 실제 평론을 보고 느꼈던 불쾌감을 형상화해봤습니다. 자기검열에 의해 삭제될 수도 있는 시적 진실을 건져보자는 의도였죠. 그러려니 부득이하게 희극적 요소를 빌릴 수밖에 없더군요. 너무 진지하면 현실과 멀어질 뿐 아니라 재미도 없으니까요."

'누룽지' 시론이 불러일으키는 공감

박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시가 철저한 '언어 유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 유학중 '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음운현상의 기묘함에 일찍 매료된 탓도 있고, 계간 《외국문학》의 편집위원 때 독일 전후시파 에른스트 안들이나 브링크만 등의 시인들을 소개했을 때 받은 영향도 크다. 젊은 시절 읽었던 '후반기 동인' 들의 모더니



박상배 교수

민음사/B6변형/114면/6000원

즘적 제스처도 그의 시관 형성에 한몫했다.

그는 이런 시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제작 비밀을 노출하기도 한다. "누룽지 / 란 / 시쓰는 사람들 / 끼리만 / 통하는 // 은폐된/언어로서 / ... 우리끼리만 / 오, 불쌍하고 / 초라하고 / 오, 그러나 / 위대한"(<희시·7> 부분)이 그렇다. 누룽지는 평소엔 시상이 떠오를 때 메모해둔 종이를 지칭하는데, 이를 모아 뒀다가 나중에 '짜깁기' 식으로 시 한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이를 "딱딱한 누룽지를 굵어 물을 넣고 팔팔 끓이면 걸쭉하게 '한 그릇' 나오는 것"이라며 '호뭇'하게 설명한다. 이렇듯 그에게 시는 아직 "딱딱 스펀지"를 내볼 만한 도전의 대상인 것이다.

박교수는 몸이 불편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저승 문턱을 밟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됐다. 그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읽기가 모두 빠지고 없지만 말하는 내내 계속 지긋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럴 땐 '재풍꾼'의 티는 간데 없고 꼭 '삼매경'에 빠진 '선승' 같다. 마치 <허공> 연작처럼.

"이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 허공을 하나씩 얻는다 / 있던 것을 하나 잃고 / 없던 것을 하나 가진다 / 허공도 이제 존재이다"(<허공·1> 전문).

- 강성민 기자